

제 14 회 전 국 민 속 예 술 경 연 대 회



전 라 남 도

南 道 農 樂

1. 由 來

우리 全南은 農事의 고장, 風流의 고장으로서 예로부터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구성진 農樂의 가락속에 파 묻혀 삶을 營爲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까지 다른 고장에 比할 수 없는 優秀한 農樂이 그 綿綿한 傳統을 이어 오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近來에 와서 우리의 傳統文化를 無條件 비하(卑下) 하려는 그릇된 風潮속에 南道農樂도 그 固有한 바탕 가락이 次次 變質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南道農樂의 優秀한 바탕가락과 陣法을 찾아 캐내어 이를 再 整理 定立化시켜 永久히 傳承 해 보자는 意圖下에 光州農業高等學校 學生들로 하여금 그 手法을 익혀 紹介하기에 이르렀다.

南道農樂은 크게 나누어 「左道굿」, 「右道굿」, 「절충굿」 등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이번에 선 보이게 되는 바탕굿은 「高興地方의 農樂」을 中心으로 해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절충굿」 이랄수 있으며 衣裳은 戰笠(병치) 과 꼬깔을 併用하고 있고 그 手法은 勞作을 흥내낸 演技가 主調를 이루고 있다.

특히 全員이 舞童을 서고 또 小鼓보다 큰 북을 들고 노는 「북놀이」는 다른 地方에서 볼수 없는 特異한 것이다.

호사한 꼬깔을 쓴 사람의 어깨위에 선 舞童들의 상모돌림도 逸品이려니와 큰 북의 웅장한 가락속에 펼쳐지는 多樣한 몸놀림은 다른 地方 農樂의 추종을 不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멋들어진 가락과 춤을 익혀 民俗音樂의 精華를 피하고 이를 永遠토록 繼承해야 하겠다

2. 농 부 가

1. 여—여—여 여루 상—사 뒤—여
여보시요 농부님 네를 말—들어—보오
아—나 농부들 말들어 보오
일락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달솟아 온다
"후렴" 여—여—여 여루 상사뒤여

2.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뒤여
여보소 농부를 말들어
어화 농부를 말들어
다되었네 다되어
서마지기 논뼨이가
반달만큼 남었네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후렴"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뒤여

3. 떠드러온다 점심바구니 떠들어온다
"후렴"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뒤여

◎ 기획 지도 : 광주농업고등학교 양 인 석

◎ 농 부 가 : 광주여자고등학교 양 혜 자